

슬픔의 정동과 탈주의 욕망

- 황동규의 초기시를 중심으로 -

류상범 (충남대학교)

1. 서론

1958년 『현대문학』에 「시월」, 「동백나무」, 「즐거운 편지」를 발표하여 등단한 황동규는 『어떤 개인 날』(1961)을 시작으로 2020년에 간행한 『오늘 하루만이라도』까지 총 16권의 시집을 상재하였다. 이러한 그의 활동은 전후 한국현대시사에서 독자적인 맥락을 형성한 것으로 "20세기 후반의 한국 시사"라 평가받는다. 이러한 평가는 4.19 세대라는 점과 더불어 황동규 특유의 감각이 기존에 보여준 한국현대시와는 차별화되는 양상으로 텍스트에 드러났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증명하듯, 현재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현역 시인임에도 주제적 접근의 논문뿐 아니라 시 세계 전반을 조망하는 연구까지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기왕의 연구들을 종합하자면 황동규 초기시의 특질은 '젊은 날의 우울과 불안 같은 낭만적 정서에 함몰되어 비극적 세계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독해의 결과 황동규 초기시 나름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한계점으로 거론되어 왔다. 특히나 이러한 한계는 『태평가』(1969), 『열하일기』(1972) 등 이후 상재되는 시집에서 '극복'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초기시에서의 "외로움의 정서를 '한 젊은이가 실의기'에 겪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본고는 『어떤 개인 날』(1961)과 『비가』(1965)를 황동규의 초기시로 규정하고 기왕의 연구가 거론하였던 '젊은 날의 우울과 불안 같은 낭만적 정서'의 심층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정동 이론이라는 방법론을 동원하여 초기시의 시적 주체가 분출하는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의 정체를 밝히고자 한다. 초기시의 시적 주체가 분출하는 일련의 정서는 단일한 어휘로 정리되기 보다는 중층적 이미지나 정서로 형상화 된다. 이러한 특성은 언표할 수는 없지만 힘과 강도로 정의되는 '정동'에 부합한다. 스피노자-들뢰즈-마수미로 이어지는 '정동' 개념을 원용하여 기왕의 연구가 구명한 '젊은 날의 우울과 불안 같은 낭만적 정서'에 내재한 힘의 새로운 의미를 구명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전제한다면 황동규 초기시에 드러난 우울이라는 정서는 암울한 세계에 대응하는 정동 정치의 일환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황동규의 시 세계 전반을 관통하는 '사랑' 표상과 '여행' 모티프가 이미 초기시에서부터 구체적인 의미를 획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고가 황동규의 '초기시'를 대상으로 '정동'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바라보고자 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2. 사건의 마주침과 슬픔의 정동

일반적으로 황동규 초기시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감정은 시인의 내면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때문에 우울과 불안의 정서는 드러나지만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적 정서는 실체가 없지만 이러한 정서가 발현되는 데에 있어 화자가 마주하는 사건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정동의 작용들에는 관계가 내포되어 있고¹⁾, 마수미는 이를 전유하여 정동적 변화는 관계를 맺는 것이고, 관계는 바로 사건에 다름 아니라 주장한다.

쉽게 말해 관계로서의 정동은 충격이며 사건인 것이다. 이를 전제로 시편을 살핀다면 “눈이 왔다”(「한밤으로」), “나무들이 우는 것을 바라본다”(「겨울노래」) 등과 같은 평이한 진술마저도 시적주체에게는 눈이나 나무와 같은 어떠한 대상과의 마주침이며 ‘눈이 온다’, ‘나무들이 온다’와 같은 사건²⁾에 의해 정동되는 것이다. 이때 시적 주체를 정동하는 주된 정서는 슬픔이다.

들뢰즈는 슬픔이 “나의 행동 능력의 감소를 포함하는 모든 수동(정념)”이라 말한다. 또한 그는 “어떤 영역에서건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슬픈 방식으로 우리를 정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폭군과 사제를 예로 든다. 폭군과 사제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슬픔을 필요로 하게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슬픔을 필요로 할수록 백성들의 존재 능력은 감소되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존재 능력은 증대되기 때문이다.³⁾ 황동규 초기시에 드러나는 현실인식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본 장에서는 「한밤으로」, 「겨울노래」, 「어떤 개인 날」, 「비가 제9가」를 통해 초기시의 시적 화자가 느끼는 정서가 슬픔의 정동임을 밝히고자 한다. 특이한 것은 단지 시적 주체 개인의 슬픔으로 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인물들에게 전염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곧 당대의 시대상 그리고 시인의 현실인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적 주체와 그 주변 인물들이 드러내는 슬픔은 당대 사회(폭군과 사제)가 조작하는 정동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시 텍스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시가 창작된 시기를 전제로 ‘거리’ 공간, 광포한 바람의 이미지, 거리의 친구들에 대한 반복적 형상화는 4·19를 암시하는 것들로 정동적 조작의 근거가 된다.

한편, 「비가 제9가」에 형상화된 시적 주체의 정동은 수동-정념에서 능동-정념으로의 이행 욕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본 시의 시적 배경 역시 부정적인 속성을 상당히 함의한다. ‘시계 소리’(종소리)를 계기로 시선이 현재에서 과거로, 현실에서 내면의식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한편, 이제까지의 모습이 시계 소리라는 사건에 의한 수동적 사건이었다면, 시계 소리를 직접 듣고자 하는 모습은 능동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이는 단지 행위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정념의 차원에서든 마찬가지이다.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은 곧 능동-정념으로의 이행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며 “온 들의 빈 흔들림”을 포착한 사건은 이미지화된 내적 움직임의 인식인 것이다.

여기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황동규의 초기시는 슬픔의 정동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적 주체를 슬픔에 정동시키는 것은 폭군과 사제와 같은 역사적 사건이다. 이때의 사건은 시적 주체와 주변의 인물들의 정동을 조작하여 슬픔-정념으로 이행하게 한다. 그러나 오

1) 스피노자의 정의에 따른 정동-정동하고 정동되는 역량-은 관계적인 결합체에 가깝다 할 것이다. 즉 정동은 현상학적 환원 같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 관계의 장 안에 있다. 관계는 사건을 만든다. 따라서 관계는 발생적이고, 관계적 사건은 매번 다르게 발생하고, 과거는 되풀이되는 가운데 매번 다른 정태를 가지고 현재와 이어지게 된다. 과거가 매번 다르게 이어지는 가운데 사건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옮김, 『정동정치』, 갈무리, 2018, 309-310쪽. 참조.

2) 마수미 식으로 말하자면 삶의 매 순간을 채우고 있는 ‘미시충격’과 같다. 마수미는 그 예로써 눈의 초점을 바꿀 때, 시야 주변이 하늘거려 시선을 그쪽으로 향할 때, 의식적으로 떠올려지지 않은 채 언뜻언뜻 지나쳐버리는 인상들이 그런 경우라 말한다. 한편, 이때의 미시충격은 곧 미시지각으로 연결되는데, 작은 것에 대한 미세한 지각이 아니라 의식에 등록되지 않고 느껴지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지각을 말하는 것이다. 황동규의 시적 주체가 마주치는 ‘눈이 오는’ 것, ‘나무를 바라보는 것’, ‘친구의 머리에 눈이 떨어지는 것’ 등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찰나의 순간이자 이미지이다. 그러한 순간의 마주침이 시적 주체로 하여금 충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정동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브라이언 마수미, 위의 책, 311-312쪽.)

3) 질 들뢰즈, 「정동이란 무엇인가」, 자유평론 옮김, 『비물질노동과 다중』, 갈무리, 2019, 33-34쪽. 참조.

히려 시적 주체는 미시지각으로서 느껴지는 능동-정념으로 이행하고자 한다. 이로써 슬픔의 정동에 함몰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정동적 잠재태로 이행하며 새로움의 가능성을 열 가능성을 보인다.

3. 사랑의 의미와 탈주의 욕망

황동규의 초기시에서 보이는 현실 인식은 대단히 암울하고 비극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적 주체는 '사랑하기'의 행위를 반복한다. 이는 스피노자의 욕망, 즉 코나투스에 다름 아니며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자 개체의 원인을 알고자 하는 내재적 욕망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황동규의 시적 주체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랑하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는지 살피고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코나투스적 욕망으로 발현되는지 살펴 보겠다.

황동규의 초기시에는 '사랑'이라는 시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⁴⁾ 황동규는 “사랑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종말을 사랑하고 그 사랑들의 무모함을 다시 사랑한다.” 때문에 황동규 시 텍스트의 사랑은 일반적인 의미의 낭만적 감정이라기보다는 중층적 의미 구조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살피기 위해 「유성」, 「비가 제1가」, 「비가 제4가」, 「즐거운 편지」를 분석한다.

「유성」(43)에서 중요한 것은 3연의 반전이다. 1, 2연에서는 유성을 바라보는 시적주체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이때의 유성은 사건이며 시적 주체의 정동적 움직임을 이미지화한 것이다. 이로써 시적 주체의 내부에 '기쁨'과 '슬픔' 사이의 정동적 이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연을 통해 시적 화자가 시도하는 정동적 조율을 보여준다. “어느 날/ 그도 나에게 하나의 사소한 일”이 될 때 “그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이를 통해 시적 화자의 내면에는 능동 정동으로의 이행 욕망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정동적 조율을 시도하고 “객관적 자유도”를 확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세계를 구성하는 법칙과 제약을 그 자체로 시적 화자의 존재 일부로 인식한 것이다. 때문에 법칙과 제약은 파괴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다. 다만 관계의 차원에서 패션을 비트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그”는 시적 화자가 인식하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곧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정동적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적 화자는 “사랑해온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예견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시적 주체는 정동적 뒤집기를 시도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세계)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정동적 반전을 꾀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사랑’이 있었던 것이다. 이때 사랑의 의미는 「비가 제1가」와 「비가 제4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두 작품은 시적 상황과 시적 주체의 인식이 유사하며, 슬픔-수동으로부터 기쁨-능동 정동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유사한 정동의 이행 과정을 보여준다. 더욱이 마지막 행을 “배울까 못 배울까”, “사랑할까 못 사랑할까”라 끝맺으며 유사한 어구를 사용했다. 이런 점에서 황동규에게 있어

4) “사랑”이라는 시어가 직접적으로 명시된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어떤 개인 날』: 「기도」(22), 「겨울 날 단장」(30), 「어떤 개인 날」(35-36), 「시월」(37-38), 「즐거운 편지」(40), 「유성」(43), 「염서」(46), 「소곡」(53), 「피에타」(59)/ 『비가』: 「1가」(68), 「2가」(71), 「4가」(77), 「십사행」(104). 특히나 『어떤 개인 날』은 30편의 시 중 10편에 사랑 시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초기시에서 사랑은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보인다. 물론, “사랑”이라는 시어가 직접적으로 드러났다고 해서 단일한 사유 방식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층적 의미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황동규의 ‘사랑’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변증법적 사랑>(김병익), <난해한 사랑>(성민엽), <나르시시즘적 사랑> 이주리 * 참고문헌 보완

“사랑”은 곧 “배움”이며, 이때의 사랑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⁵⁾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면모는 「즐거운 편지」에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정동적 전환과 코나투스적 욕망은 시적 주체의 ‘여행’으로 발현된다. 이러한 특성은 「어떤 여행」과 「여행의 유혹」이라는 작품에서 살필 수 있다. 이때의 여행은 코나투스적 욕망의 형상이자 정동적 잠재태가 발현된 양상이다. 더욱이 「여행의 유혹」에서 보여주는 눈물에 굴절된 지평선의 이미지는 경계의 굴절을 의미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곧 시적 주체 또한 정동을 조작하는 정동 정치로서 대응하는 것이고, “눈물”(슬픔 정동)의 패턴을 굴절시켜 새로운 감각장을 돌출시키는 것이다. 이는 들뢰즈가 말하는 문턱을 넘는 것에 부합한다.⁶⁾ 더욱이 눈물을 통해 무너뜨린 지평선을 “원무를 추며” 껴맨다는 것은 또다른 생성인 것이다. 초기시의 시적 주체에 내재된 정동적 잠재태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해체되고 생성되며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태는 “여행”이라는 실제적 행위와 결합되어 그 의미가 심화되는 것이며, 중기 이후의 시편들에서 보이는 삶의 자세 또한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4. 결론

참고문헌으로 대신 함.

* 참고문헌

● 기본 텍스트

1. 황동규, 『황동규 시전집』, 문학과지성사, 2017.

● 논문 및 저서

강동우, 「황동규 시의 변모 양상 연구」, 『어문연구』, 어문연구학회 102, 2019, p.151-177.

김병익, 「사랑의 변증과 지성」(해설), 『삼남에 내리는 눈』, 민음사, 1975,

『황동규 깊이 읽기』, 문학과지성사, 1998.

유성호, 「황동규 시에 나타난 실존적 고독과 신성한 것의 지향」, 『현대문학이론연구』, 2018.,

유창민, 「황동규 초기시에 나타난 방황하는 청년 표상」, 『새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회, 2012, 719-740쪽.

이성천, 「황동규(黃東奎) 초기시(初期詩)에 나타난 ‘불안(不安)’의 정체(正體)」, 『어문연구』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309-331,

——, 「한국 현대시의 존재론적 의미 고찰-황동규의 초기 시세계를 중심으로」, 『비교문학연구』,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6,

질 들뢰즈, 「정동이란 무엇인가」, 자율평론 옮김, 『비물질노동과 다중』, 갈무리, 2019.

J. 토마스 쿡, 김익현 옮김, 『스피노자의 『에티카』 입문』, 서광사, 2018.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옮김, 『정동정치』, 갈무리, 2018.

5) 스피노자는 운동이 본성상 스스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우주에 존재하는 각각의 사물은 계속해서 존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코나투스라 규정한다. J. 토마스 쿡, 김익현 옮김, 『스피노자의 『에티카』 입문』, 서광사, 2018, 154쪽. 참조.

6) ‘문턱’을 넘는 행위는 고정된 값 혹은 결과나 완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해체의 과정이자 무너뜨림이다. 김민지, 위의 논문, 274쪽.